

보도일시	2025. 05. 27. (화요일)		
위원회명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위원장
담당자	이우형 비서관 / 02-784-6450	E-mail	wishjeju@daum.net

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서 전달받아

- 해양플라스틱 오염 · 생물다양성 위기 등 복합 해양환경 문제 대응 촉구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위성곤·위진, 이하 ‘기후위’)는 26일(월), (사)바다살리기네트워크로부터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사)바다살리기네트워크 소속 해양환경단체 대표단이 참석해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감축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 마련 ▲예방·수거·처리의 전주기적 정책 전환 ▲시민참여 기반의 정책 추진 등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기후위 위성곤 위원장과 염태영 수석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기후위기와 분리된 개별 이슈가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복합 환경위기의 또 다른 얼굴”이라며, “플라스틱 생산과정은 대량의 화석연료를 소모하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생산부터 폐기까지 이어지는 플라스틱의 전 과정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며, 해양으로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결국 인간의 식탁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해양쓰레기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오늘 제안을 시작으로 해양과 기후를 잇는 통합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끝/



<사진> 2025. 05. 26.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해양강국을 위한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전달식